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5.(금) 16:00
(지 면) 2026. 5. 16.(토) 조간

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노조 대표 간담회 개최

- 공무원 노조 3개 대표와 상생 협력 논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기 소통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지방공무원들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방선거·민생지원 총력, 현장 공무원 노고 격려

이날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주요 현안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윤 장관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조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상생 노사관계 구축, 노조 건의에 적극적인 소통 약속**

간담회에 참석한 3개 노조 대표들은 현장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업무 과부하 문제를 전달했다. 특히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적 행사와 민생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하며,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조합을 국정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주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자치혁신실 공무원단체과 | 책임자 | 과 장 | 정명호 (044-205-3281) |
| | | 담당자 | 서기관 | 한명수 (044-205-3289) |

